



'메이저 킴' 전인지 미소 뒤 강심장으로 4타차 뒤집었다

전인지가 1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70회 US여자오픈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6타를 쳐 함께 8언더파 272타로 우승했다.

연합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미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US여자오픈을 제패했다.

전인지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컨트리클럽(파70, 6289야드)에서 열린 제70회 US여자오픈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 66타를 쳤다. 함께 8언더파 272타를 적어낸 전인지는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인 양희영(26)을 1타차로 제치고 처음 출전한 미국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전인지는 양희영에 4타 뒤진 채 마지막 라운드를 맞았지만 15~17번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는 등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가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뒀다.

전인지는 1998년 박세리가 이 대회에서 첫 우승한 이후 7번째 한국인 챔피언이 됐다. 한국 선수들은 박인비(27·KB금융그룹)

15번홀서 양희영에 역전...첫 출전 US오픈 우승

2008년과 2013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포함, 8개의 US여자오픈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다.

전인지는 또 2008년 만 19세로 우승한 박인비, 1998년 만 20세로 우승한 박세리에 이어 역대 이 대회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우승한 선수가 됐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식 멤버가 아닌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2011년 우승한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2005년 우승한 김주연 이후 처음 출전한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전인지는 올 시즌 한국 무대에서 3승,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메이저대회 살롱파스컵에서 우승한 데 이어 US여자오픈

우승까지 차지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전인지는 전반에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타를 줄이며 추격했지만 10번홀(파4)에서 나온 벙커샷 실수로 우승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두 번째 샷이 그린 옆 벙커에 빠진 뒤 한번에 탈출하지 못하고 네번 째 샷으로 볼을 그린 위에 올려 1타를 잃었다.

전인지는 12번홀(파3)에서 버디를 잡은 것을 신호탄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15번홀(파4)에서 3m 거리의 버디 퍼트 성공, 단독 선두로 나선 전인지는 16번홀(파4)과 17번홀(파3)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우승에 바짝 다가갔다.

벌어놓은 타수를 퍼트 실수 때문에 다까먹은 양희영은 16번홀에서 반격을 시작

했다. 235야드의 짧은 파4인 16번홀에서 양희영은 티샷으로 볼을 그린 위에 올려 뒤 이글을 잡아냈다.

17번홀에서 버디를 잡은 양희영은 전인지를 1타차로 추격하며 재역전의 기회를 남겨 놓았다.

다육이 전인지는 18번홀(파4)에서 티샷을 깊은 러프에 빠뜨려 레이업을 하고 세 번째 샷으로 볼을 그린 위에 올리는 바람에 보기가 돌아왔다.

양희영은 마지막 홀에서 파란 잡어도 연장전으로 갈수 있었지만, 전인지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다.

티샷이 깊은 러프로 빠져 그린을 직접 노릴 수 없었고 결국 보기로 마지막홀을 마무리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전인지는 "모든 순간이 새로웠고 즐기려고 노력했다"며 "이곳에 와서 응원해준 한국 동료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수학영재·태극마크...함평골프고에 장학금

전인지는 누구?

보성 특광중·함평골프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US 여자오픈 우승으로 '메이저 킴'이 된 전인지(21·하이트진로)의 출신 학교다. 태권도 선수 출신인 아버지가 딸을 골프명문인 특광중과 함평골프고로 진학시키며 기량을 키웠다. 아버지 전종진씨는 "좋은 골프장과 코치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골프채를 잡은 전인지는 '수학영재'였다. 한국여자골프(KLPGA) 선수 소개란의 전인지 코너에는 아직도 "학창시절에는 개인적으로 수학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고 적혀 있다. 전인지는 골프 엘리트 코스를

밧았다. 중3 때 국가대표 상비군이 됐고, 고1 때 태극마크를 달았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국가대표를 일찌감치 반납하고 2012년 프로로 전향했다.

이후 전인지는 2013년 KLPGA투어 기자회견차 한국여자오픈 우승을 시작으로, 2014년에만 KLPGA 대회 4차례 우승을 일궈내며 최고의 신인으로 떠올랐다. 이 기세를 몰아 지난 5월에는 JLPGA 투어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에서 우승하고 다시 두 차례의 KLPGA 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전인지는 지난해 모교인 함평골프고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당시 전인지는 "학교에서 받았던 혜택을 후배들을 위해 돌려주고 싶다"며 후배들을 격려해 좋은 본보기가 됐다.

'집 나간' KIA 투·타...홈에선 달라질까



원정 9연전 1승 7패...선발 자책점 7.18
5경기 멀티 실책·타선 침묵 '총체적 난국'
LG와 전반기 마지막 홈 3연전 회복 관심

'김기태호'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KIA 타이거즈에게 올 시즌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원정 9연전 길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kt, 넥센, SK와의 9연전에서 비가 와서 치르지 못한 1경기를 빼고 1승7패를 기록했다. 5할에서 시작된 대장정은 37승 43패, -6으로 끝이 났다.

4연패에 빠진 KIA는 안방에서 LG와 주중 3연전을 치른다. 울스타브레이크를 앞두고 치르는 전반기 마지막 일정이다. 성

적도 성적이지만 후반기를 위해 팀 분위기도 재정비해야 한다. 후반기를 위한 다음 수까지 남아 하는 3연전. '김기태호'의 위기 관리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다.

투·타가 동시에 무너졌다.
원정길에서 승리투수가 된 사람은 임준혁이 유일하다. 선발투수가 5회 이상을 책임진 경우는 임준혁의 5이닝 1실점(비자책)을 포함해 세 차례에 불과했다. 박정수가 5일 넥센을 상대로 5이닝 5피안타 4사구 7탈삼진 2실점, 스티븐슨이 10일 SK를

상대로 5.1이닝 7피안타 3사구 3탈삼진 5실점을 한 게 전부다.

최근 8경기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7.18이다. 여기에 세 사람이 5이닝 이상을 책임진 경기를 뺀 5경기에서는 선발진이 11이닝에 14점을 자책점으로 냈다. 평균자책점은 11.45까지 올라간다.

수비도 아찔했다. 원정을 다녀오는 동안 10개의 실책이 터졌다. 5경기에서 멀티 에러가 나왔고, 흥건희가 선발로 나왔던 9일 넥센전에서는 2회 2사 1루에서 나온 김민우의 포구 실책이 빌미가 돼 한 이닝 동안 8실점을 허용했다. 8점이 모두 비자책점으로 남으면서 프로야구 역대 2위라는 기록 아닌 기록까지 남았다. 이번 원정에 앞서 72경기에서 38개의 실책만 기록했던 KIA지만 보이지 않는 실책까지 내·외야

에서 터져나오면서 승률이 하락했다.

침묵하는 타격 역시 답이 없다. 이범호가 한 번씩 홈런을 터트리며 분위기를 끌어오고 있지만 꾸준함이 부족하다. 홈런은 14개로 팀 내 1위지만 타율은 여전히 0.232에 그치고 있다. 3차레나 2군을 다녀온 나지완의 타율도 0.195. 득점권은 0.140까지 내려간다. 하위권의 공격력도 처참하다.

예상치 못했던 공·수의 총체적 난국에 벤치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실재없이 마운드 구성과 타선이 변하면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운도 따르지 않고 있다. 윤성민의 볼넷 세이브가 나왔던 8일 넥센전, 가용자원이 모두 소모되면서 타격 재능이 있는 스티븐슨을 타석에 세우는 강수까지 뒤흔었지만 2%가 부족했던 공격으로 연장 12회 끝내기 역전패를 당했다.

전반기 남은 3경기, KIA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위기 속에 전반기 마무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코비치 윌블턴테니스 2연패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윌블턴 테니스대회(총상금 2675만 파운드) 남자단식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조코비치는 12일(현지시간) 영국 윌블턴의 윌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서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를 3-1(7-6<1>, 6<10>-7, 6-4, 6-3)로 물리쳤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조코비치는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윌블턴에서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188만 파운드(약 32억8000만원)다.

조코비치는 또 이번 우승으로 그랜드 슬램 대회 단식에서 통산 9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그는 호주오픈에서만 다섯 차례 우승했고 US오픈에서는 2011년에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아직 프랑스오픈에서는 우승하지 못했다. 윌블턴 남자단식 2년 연속 우승은 2007년 페더러 이후 올해 조코비치가 8년 만이다. /연합뉴스

즐거운 영화 산책

롯데시네마 구제일극장

인사이드아웃 3

- 1관 손님
- 2관 터미네이터제너시스
- 3관 극비수사/소수의견
- 4관 주리키워드/인사이드아웃3
- 5관 인사이드아웃/인사이드아웃3
- 6관 연평해전
- 9관 손님/인사이드아웃3/러널리츠/우먼인골드
- 7관 세네카를 손님/터미네이터제너시스
- 8관 세네카를 연평해전/러널리츠

단체 및 대관문의 : 070-4940-0523

콜롬버스시네마

현재상영작 / **금주개봉작**

연평해전	인사이드아웃
주리키워드	손님
극비수사/터미네이터제너시스	

우먼인골드 / 인사이드아웃3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 KTF, LGT 멤버십 본인 1000원 할인 / 현대카드 포인트 1인 2000포인트씩 / 2인까지 4000포인트 사용 (현대카드 결제시 적용)

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 누르고-6-6-1-4-9 / 9시개봉로 인사를 따라가며 누르세요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 1관 인사이드아웃/연평해전
- 2관 인사이드아웃
- 3관 손님
- 4관 연평해전
- 5관 손님
- 6관 터미네이터제너시스
- 7관 터미네이터제너시스
- 8관 주리키워드/러널리츠
- 9관 극비수사
- 10관 인사이드아웃/우먼인골드

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